

2014년 사업계획

I. 사업 계획의 배경

1. 사회적경제 현황

1) 보완적 관점과 제도화에 기초한 양적 성장

-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보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완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장원봉, 2007)을 띠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위상
 -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접근
 - 사회적 질서의 변화 보다는 특정한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문제 해결로 한정
 - 새로운 사회복지 제공자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
 - 분배정책·사회복지 전달 수행자 등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주체 간의 협력 실현
-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사업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그러함.

< IMF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 지원 기관 현황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012(2014)	1,522(2012)	1,370(2012)	983(2013.5)	3,336(2013.12)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안전행정부 지역경제리뷰 137호, 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오미에(201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icoop생협의 생태계 조성역할』

- 노동·복지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새로운 사업조직은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확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낳았음.
-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제정), 사회적기업육성법(2006년 제정)으로 제도화 되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결합되어 사회 문제 해

결이라는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조직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였음.

-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약자들을 위한 사업조직 활성화 환경을 조성함.

2) 행정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힘의 불균형

① 높은 공공재원 비중

- 지역사회 관계망에 기초한 자원 혼합 보다는 정부 보조금 중심의 재원에 기초
- 지역사회의 총체적 발전전략 보다는 사회복지 전달 수행자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규정하거나 그것에 머물면서 발생
- 행정에 의한 지정 방식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행정 주도성이 강화

② 시민사회진영의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미흡

- 정부 주도성 강화, 높은 공공재원 의존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진영의 주도성 상실
- 취약한 사회적 자본, 민간자본과의 파트너쉽 허약 등으로 새로운 사업기회 취약
- 행정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자기 위상을 가지려는 목표가 지배하고 있음.

③ 행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주화 및 정의

-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의와 범주화
-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업무에 따른 결과

④ 개별화 된 중앙부처 재정일자리 사업

- 중앙부처 재정 일자리 사업의 행정통합력 부재
- 부처별 지원조직 및 전달체계 구축
- 부처별 지원 인프라 구축

⑤ 지원조직 중심의 사회적경제

- 재정일자리 사업 방식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관리 체계 필요.
- 행정의 말단 기관화 되는 지원조직의 역할
-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조직 지위 획득을 둘러싼 경쟁 심화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인식 :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도성 회복

※ 정부주도성이 강화되는 현상은 사회적경제 진영의 물적 자본 취약성이 정부재원에 대한 상호 경쟁과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사회적경제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 3가지 중요 과제를 설정.

1) 지역의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활동 기반은 지역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지역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진영과 지자체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자원 경쟁, 사업 경쟁을 조절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전개할 수 있는 협의구조이며, 조절기구로서 그 의미를 지님.
- 현재 광역과 기초단위의 지역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성장 해 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사회경제연대체 등이 조직되고 있는데, 상호 관계성을 맺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연대 활동의 이니셔티브나 멤버십의 공감대 및 유대감의 차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결과임.
- 차별성이나 동질성이 강조될 경우 사회적경제 진영이 통합된 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기에 극복해야하는 경향임.
-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협동조합진영과 사회적경제 진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각각을 그룹화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네트워크들과의 적극적 관계 맺기를 상호연계와 계통성을 체계화 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대회의는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통합적 관점으로 상호유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내부거래 및 기금 조성 등과 같은 구체적 이슈를 매개로 지역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지역네트워크와 연대회의의 협력 활동 수행할 필요를 인식하여야 함.

2) 사회적 자본을 물리적 자본으로 전환

-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은 시민사회집단과 진영의 성장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실천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네트워크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에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양적 성장을 해 온 사회적경제는 '정책과 행정의 과잉'이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도성 확립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양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 협동조합의 등장 현상에도 예외가 아닌 문제이기도 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실천적으로 부족했던 주체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을 할애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라 인식함. 주체의 힘이 전제 될 때, 정부와의 수평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정책이 지배하는 사회적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임.
- 따라서 연대회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전체 사회적경제 진영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함. 또한 사회적 자본이 물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사회적진영 내의 협력 거래를 촉진하고 공동의 기금 조성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함.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정책 개선 활동

-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구축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와 우

선구매 등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거래와 내부 기금 조성 등과 같은 상호 협력과 연대 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 개선마련에 주목하고 있음.
- 그리고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진영의 통합력을 높이고 그 합의에 기초한 정책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상호유기성을 높이는 것을 계기로 삼아야 함.

II. 2014년 활동 목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비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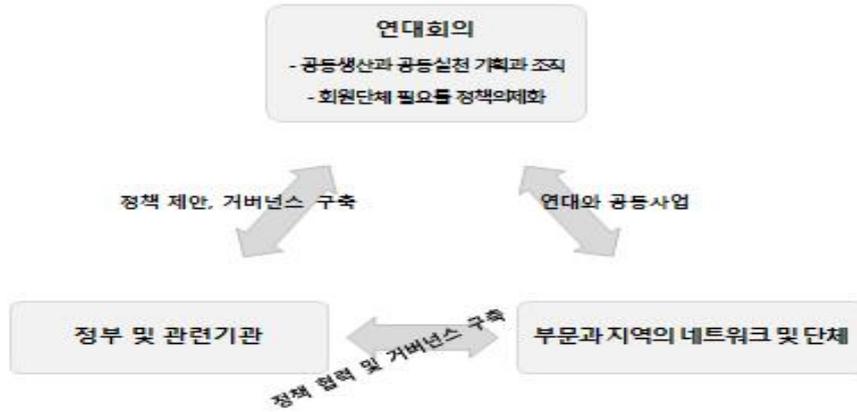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활성화



1) 2012년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총회 자료집

III. 사업계획

1. 주요 사업계획



① 조직력 강화

홈페이지 구축 - 1건
회원단체 간담회 - 6회
정책 간담회 - 6회

②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

사회적경제 제도 통합 TFT 구성과 운영
협동조합 연합회 건설 촉진 - 노협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총연합회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간담회 - 2회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지역네트워크 행사 연대 및 후원 - 명의 후원
회원단체 및 지역 및 부문 네트워크와 공동토론회 - 2회
협동사회경제 활동가대회 - 1건

③ 사회적경제 물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TFT 구성
사회적경제 상호 협력 거래를 위한 TFT 구성
사회기술 정책 제안 및 시범사업을 위한 TFT 구성

2. 세부 사업내용

1) 조직력 강화

(1) 홈페이지 구축

- ① 목적 : 연대회의 소개 및 회원단체 소통을 위한 매개 수단 필요성 제기
연대회의 카페의 확장성 및 접근성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함.

- ② 개요

- 4월에 홈페이지 오픈 / 외주 제작

(2) 회원단체 간담회

- ① 목적 : 회원단체들에게 유용한 연대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단체와 사무국 및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회원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함.

- ② 개요

- 년 6회 (3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실시)
- 운영위원 및 사무국 참여
- 부문 및 개별 단체로 간담회 조직
: 신협 / 생협 / 신규협동조합 / 지원조직 / 지역 / 연합조직 등

(3) 정책간담회

- ① 목적 : 회의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상황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

- ② 개요

-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에 맞춰 6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실시)
※ 1월 '사회적경제 정세'(노대명 박사) 초청 간담회 실시
- 운영위원 및 회원단체 참여
- 주제는 현안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

(1) 사회적경제 제도 통합 TFT 구성과 운영

① 목적 :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정책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제도 및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함.

② 개요

- 2월 ~ 3월에 TFT 구성 및 운영 시작. 관련 외부 연구자와 연대회의 사무국 및 회원단체 중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자로 구성(7인 이내로 구성)
- 9월 중간보고 성격의 토론회 개최(정책 동향을 고려해 시기는 조정)

(2) 협동조합 연합회 건설 촉진

①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신규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해 연합회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부문의 연합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와 지원

② 개요

- 주력 분야 :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연합회 부문
- 연합회 건설을 위한 주체 조직화 및 연합회 설립 지원과 협력
- 연합회 건설 준비위 회의 참여, 연합회 건설 흐름 파악과 협력 등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① 목적 : 지역과 부문의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부문의 중간조직들과 소통을 통해 협력기반 마련

② 개요

- 년 2회 개최 : 3월 ~ 4월 / 9월 ~ 10월
-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공유, 공동대응이 필요한 정책 현안 공유와 공동 활동 모색,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테마의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
- 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권역별 지원기관 등 참여

(4) 회원단체 및 지역 및 부문 네트워크와 공동토론회

① 목적 : 회원단체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나 공동의 활동 성과를 정책 의제화하거나 확산하기 위한 방안

② 개요

- 토론회 1 :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제약 요인 분석과 정책 개선 과제 토론회
 - 내용 : 생협 및 신협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호 협력 거래를 제약하는 정책 및 제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함.
 - 생협, 신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노동자협동조합,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참여
 - 시기 : 3월 말 ~ 4월 말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팀 구성

- 토론회 2 : 사회적경제 공동 기금 조성 및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 공동기금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 내용 : 연대회의 공동기금 조성 TFT 활동 경험을 지역의 실천 활동과 연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함.
 -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 개최
 - 시기 : 6월 또는 9월(연대회의 TFT 내용 축적 정도를 보면서 시기 조정)

(5) 협동사회경제 활동가대회

① 목적 : 전국의 협동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관련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

② 개요

- 시기 : 11월 ~ 12월 중 (지역의 활동가 대회 일정을 고려해 결정)
- 지역과 공동주최 방식
-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흐름을 총화하는 관점으로 접근
- 연대회의와 개최 지역과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3) 사회적경제 물적 기반 조성

(1) 사회적경제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TFT 구성

① 목적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기금 조성을 우선 조직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체들의 자조와 협력 문화를 만들고 자 함.

② 개요

- 사회공헌실천 단체 12개 중 6개 이상을 조직
- 참여 회원단체 사회공헌 기금 총액의 10%를 공동기금으로 조직
- 공동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
- 2월 ~ 3월 중에 TFT 구성과 모임 시작
- 지역네트워크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2) 사회적경제 상호 협력 거래를 위한 TFT 구성

① 목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과 시장 확장의 어려움이 배경이 되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거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모색이 시도되고 있음. 이에 연대회의 회원단체 중 협력 거래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지닌 단체들을 조직해 협력거래를 실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함.

② 개요

- 협력 거래에 관심을 갖는 20개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협력 거래 유형과 방식을 파악하고 지속적 거래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해결하고자 함.
- 협력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여부 타진 및 지역 소재 회원단체를 통한 실천 방안 모색 등
- 2월 ~ 3월 중 TFT 구성과 운영 시작
- 하반기 성과 발표와 공유

(3) 사회기술 정책 제안 및 시범사업을 위한 TFT 구성

① 목적 : 2013년 활동가 대회를 통해 연대회의에 제기된 요구사항으로, 사회기술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지를 목적으로 정부 정책 제안 및 시범

사업을 모색하고자함.

② 개요

- 2월 ~ 3월에 사회기술에 관심 있는 관련분야 연구원 및 연구자와 현장, 사회 기술 사업조직 등으로 TFT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
- 정책 제안 및 시범 사업 모델 개발을 목표로 운영
- 필요 자원 및 관계망을 연대회의에서 지원
- 하반기 성과 발표와 공유

4) 기타 예비 사업

(1) 목적

- 외부의 제안이나 TFT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획 사업 등을 실시

(2) 사업 영역

① 해외 관련 조직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② '협동조합 주간 행사' 기간에 요청되는 토론회

- ※ 지역과 부문의 기념행사 및 토론회 개최를 중심으로 연대회의는 후원 또는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함.

③ 연대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동사업 및 공동토론회 등

④ 정세 변화를 고려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 등